

## 懷疑主義批判(三)

-思想과 生活의 方法論-

裴相河

『그러면 이곳에서 問題를 바로 잡아 나의 『懷疑主義批判』이 한 개의 眞理 일까 또는 眞理라 하더라도 價値있는 眞理라 할 수 잇슬까의 疑問을 解決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議論의 主張이 그네들의 思想及 그네들의 思想을 안고 잇는 오늘이 朝鮮에 잇서서 무슨 影響을 줄 수 잇스며 무슨 價値를 包含하고 잇느냐 卽 『生』과 씨름하고 잇는 그네들에게 한 마디 聲援이라도 될 수 잇슬까-나는 이와 가티 當面에 잇서서는 나의 問題를 朝鮮에만 限하고 싶다. 나는 나의 論文이 『世界的』을 바라지 안는다. 그것이 한 개의 朝鮮에 對한 한 개의 價値있는 論文이면 나로써 自足할 다름이다. 이도 崎嶇스런 宿命을 타고난 朝鮮의 아들인 ㅈ답일까?

그리고 以上の 解決 卽 『懷疑主義批判』이 價値로의 眞理를 갖고 잇느냐 업느냐의 解決은 次次 本論을 읽은 뒤에야만 判明될 수 잇스리라고 밋는다. 그러치만은 그 먼침 나는 그네들에게 『그네들은 只今 어셔한 時代에 存在하느냐』-이와 가티 물어볼까 한다. 그네들 卽 우리들은 오늘날 어셔한 ㅈ에 살고 잇느냐 더 適確하게 말하자면 어셔한 ㅈ에 잇슬려서 살려고 잇느냐 이것이 무슨 『ㅈ』냐? 吾人은 이 ㅈ를 思想 上的 啓蒙期라고 불으지즘을 □□한다. 啓蒙期라 함에는 曙光의 約束이 넘우나 稀微한 ㅈ답이다. 그리고 徹底한 懷疑期라고도 하기실타 철저한 啓蒙期하기엔 權威的 思想을 把握함이 넘우나 眞實치도 안코 徹底치도 못한 ㅈ답이다. 獨逸 어느 哲學家와 가티 『現代는 思想의 危機라』함도 朝鮮에 잇서서는 不當할 것 갖다. 現代만을 思想의 危機라 함엔 朝鮮은 넘우나 安定한 時期를 맞보지 못한 ㅈ답이다. 더구나 이 ㅈ를 思想과 生活의 黃金時代라곤 밋진사람 안이면 ㅈ도 ㅈ지 안홀 것이다. 思想과 生活의 黃金時代라기엔 우리의 『가슴』과 『삶』은 넘우나 눈바람에 시달린 ㅈ답이다. 그러면 이 『ㅈ』는 무슨 ㅈ이냐?

筆者는 ㅈ트르 이 ㅈ를 定義해서 『어셔케 할까』의 時代라고 불르고 ㅈ다.

왜 그러나하면 우리의 모-든 가슴들은 나날히 『어쨌케 할까』하며 歎息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或은 어쨌한 論者는 나의 定義를 獨斷이라 할지도 모르겠다. 또한 어쨌한 論者는 이것을 한 개의 時代 錯誤觀이라고 否認해버릴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깨닫고 있다. 우리는 決코 어쨌케 할까고 歎息하고 이지는 안타 우리가 다 가티 한 개의 朝鮮사람이란 宿命을 타고난 以上 우리로서의 하지 안흐면 안될 바를 把握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으로 이새를 어쨌케 할까의 時代라고 불름은 矛盾이다』 이와 가티 批評함도 쉬운 일 잦다. 그러치만은 筆者는 『어쨌케 할까』로써 『어쨌한 일을 할까』라는 目的 意識에 對한 懷疑를 意味함이 안이다. 筆者나 그네들이나 먹지 못해 울고 있는 朝鮮의 子息이라면 뜻하지 안코 생각지 안코로 서로히 約束하지 안트래도 『무엇을 할까』, 『어쨌한 일을 할까』의 目標는 스스로 斟酌될 것이며 스스로 깨다러질 것이며 期치 안코도 符슴되고 말 것이다. 그럼으로 筆者의 『어쨌케 할까』라는 懷疑는 『어쨌한 일을 할까』라는 目的에 對한 懷疑안이요, 우리가 自明스리 알고 있는 그 한 目的을 到達키 爲한 前提手段 卽 方法에 對한 懷疑를 뜻함이다. 어쨌한 手段과 어쨌한 方法으로 우리의 目的하는 바를 일울 수 잇스며 잡을 수 잇슬까?-이와 가티 속씩이고 잇는 것, 이 새의 朝鮮이다라고 할 것 가트면 獨斷일는지 모르되 不肖한 筆者에겐 아직껏 이러케 박게 미더지질 안는다.

그러면 어쨌한 手段으로 어쨌한 方法으로 우리는 우리의 目的하는 바에 到達하여야 할 것인가? ㅅ구로 가든 모로 가든 서울만 갓스면 그만일 것이로되 ㅅ구로 가는 것보담 모로 가는 것이 더운 ㅅ빨리 갈 수 잇는 것이며 모로 가는 것보담 ㅅ또한 바로 가는 것이 더욱더 한 層 ㅅ빨리 갈 수 잇슬 것이니 ㅅ더 하엿스면 바로 갈 수 잇슬까? 設슈 바로 갈 수 잇드래도 어느 길을 取함 이 가장 갓싸울까?

우리는 우리의 白頭山서 훌륭한 材木들이 해마다 자러가며 느러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黃海바다에는 □과 다름업시 살진 고기들이 줄어지지 안헛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白頭山에서 우리의 훌륭한 材木들을 우리의 손으로 손수 비여 ㅅ깎고 가다듬어 우리의 손으로 맵시 곱게 집을 짓고 살어 보려면은 그리고 黃海바다의 살진 고기를 우리의 손으로 송수 잡아 맛나게 약념해서 지지고 구거 우리의 배를 배불으게 할려면……어쨌케? 果然 ㅅ또 한 번 『어쨌케』?

『어쨌케』……무쇄탈 쓴 朝鮮의 아들딸이 이와 가티 煩悶하고 잇는 이 새이다. 다시 말하면 朝鮮의 이 새는 方法論的 懷疑時代라 할 수 잇슬 것이다.

그럼으로 筆者는 □稿로써 懷疑主義의 方法論的 價値批判을 圖謀한다. 다

시 말하면 『어써케』란 方法的 懷疑의 根原을 把握함으로써 우리의 思想과 生活의 方法論 上の 萌芽를 哲學的으로 暗示하려 함이다. 그럼으로 思想과 生活의 方法論인 本論은 唯物論의 立場에 서지 안코 唯心論的 見解에도 倚恃하지 안는다. 하지 안는다는 것보담 할레야 하지 못할 形便이다. 왜 그러냐하면 本論이 思想과 生活에 對한 한 개의 方法論인 以上 어느 思想, 어느 生活이든지 받드시 採用치 안흐면 안이 될 方法論인 까닭이다.